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인플루엔자, 일본 Influenza in Japan

일본의 올해 인플루엔자 시즌이 작년보다 약 한 달 빨리 시작되어 지속 증가 중

- '25년 40주차 일본의 인플루엔자 지표(감시 의료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56명(총 6,013명)으로 34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전년 동기간(0.77명)의 약 2배 수준임(10.10.)
- 올해 인플루엔자 시즌은 39주에 시작되어 작년보다 약 한 달 빨리 시작됨. 이는 '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인플루엔자 시즌의 시작임. 지역별로는 오키나와현의 주간 인플루엔자 지표가 12.18명(총 5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외 도쿄도 3.30명, 치바현 2.36명, 사이타마현 2.16명, 가나가와현 2.47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중임
-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최근 증가추세*이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9월 22일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 접종으로 시작, 현재는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 중임.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함

* 39주차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9.0명

2. 인플루엔자, 태국 Influenza in Thailand

태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중으로 9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

- 태국에서 9월 이후 인플루엔자가 급격한 증가세로 40주차에 가장 많은 약 55,000명의 환자가 보고 되어 전년 동기간 및 최근 5년의 중앙값보다 크게 증가함. '25년(~10.8.) 보고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702,238명(사망 61명)임
- 태국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우기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날씨 변화를 언급하였으며,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 조치 및 임신부, 생후 6개월~2세 영아,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함
- 국내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3. 황열, 코스타리카 Yellow fever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에서 1956년 마지막 황열 발생 이후 약 70년 만에 황열 확진 환자 보고

- '25년 10월 12일 코스타리카 보건당국은 황열 해외유입 사례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1956년 마지막 발생 이후 약 70년 만에 발생한 사례임
- 환자는 페루 아마존 지역 여행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황열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됨
- '25년(~39주) 미주지역에 황열 환자가 300명(사망 126명) 발생하여 '24년 총 발생(환자 61명, 사망 30명)을 이미 초과함. 다만 올해 5주~15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현재까지 국내 황열 감염은 보고된 적 없음. 황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모기 기피제 사용, 긴팔 옷 착용, 모기장 사용 등) 준수 및 황열 예방접종 권고

4. 공수병, 프랑스 Rabies in France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 지역에서 공수병 환자 1명 사망 보고(10.1.)

-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주 페르피냥(Perpignan)에서 물 공포증, 경련 증상을 보인 성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 (9.18.) 후 공수병 확진을 받은 다음 날 사망(9.25.)한 것으로 보고됨. 환자는 '24년 2월 광견병 유행 국가를 방문하여 고양이 접촉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물 접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ECDC는 현재 프랑스 본토의 주민이나 방문객이 공수병에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함. 프랑스 보건당국은 공수병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수병 유행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함
- 국내에서는 '04년 마지막 공수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환자 보고 없음. 공수병 유행 국가 방문 시 동물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할퀴 등 노출 시 즉시 비눗물로 씻고,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세척 후 소독 등 추가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함

1. 인플루엔자, 일본 Influenza in Japan

발생 상황

'25년 40주차 일본의 인플루엔자 감시기관당 환자 수는 1.56명(총 6,013명)으로 34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전년 동기(0.77명)의 약 2배 수준임. 올해 인플루엔자 시즌은 39주에 시작되어 작년보다 약 한 달 빨리 시작됨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지표(감시 의료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1.56명(총 6,013명)으로 34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전년 동기(0.77명)의 약 2배 수준임(10.10.)¹⁾²⁾
 - 일본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지표가 1.0명을 초과하면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으로 판단하며, 올해는 39주에 1.04명을 기록해 작년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인플루엔자 시즌이 시작되어 1999년 동 방식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빨리 인플루엔자 시즌이 시작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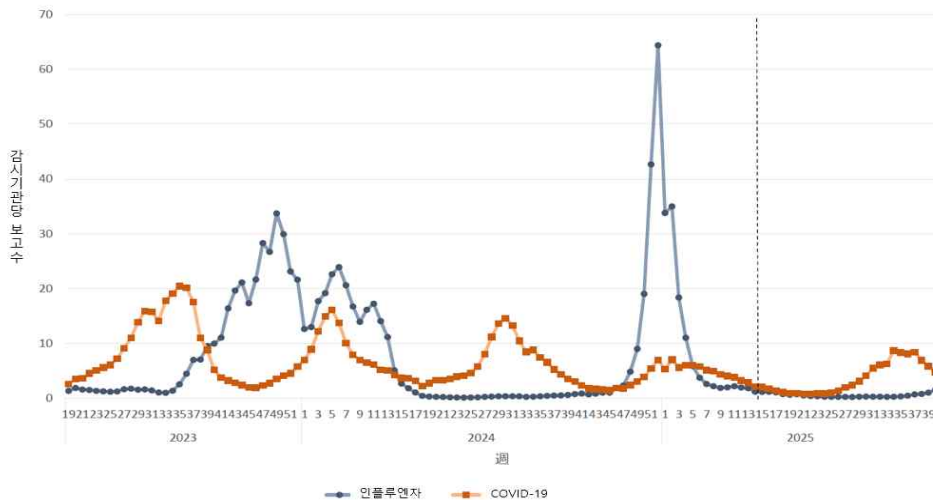


그림 1-1. '23년~'25년 일본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기관당 환자 현황 (일본 후생노동성, '25.10.10. 기준)

- 지역별로는 오키나와현의 주간 인플루엔자 지표가 12.18명(총 5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⁴, 오키나와현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함(10.10.). 해당 지역의 40주차 환자 중 5세~9세 연령대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세~4세 114명, 10세~14세 105명 등 순이었음. 인플루엔자 아형은 A형이 465명으로 가장 많았음(B형 10명, 불명 73명)

* 인플루엔자 지표가 10.0명 이상이면 주의보, 30.0명 이상이면 경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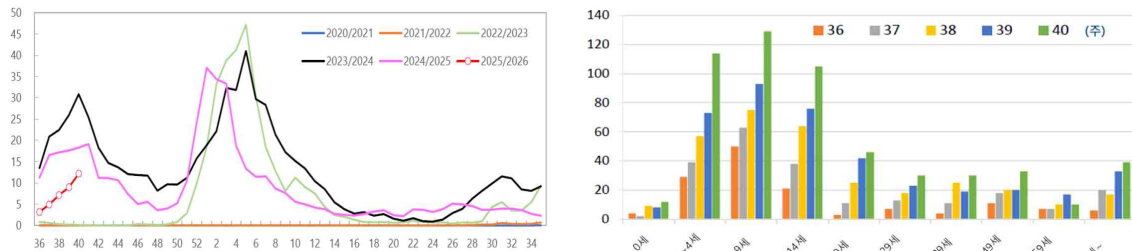


그림 1-2. 일본 오키나와현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기관당 환자 보고 수 현황 (좌: '20~'25년. 우: '25년 36~40주차 연령대별) (오키나와현 보건부, '25.10.8. 기준)

- 또한, 도쿄도는 3.30명, 치바현 2.36명, 사이타마현 2.16명, 가나가와현 2.47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빠른 증가세가 확인됨.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은 0.3명~0.8명 수준으로 비교적 낮지만, 상승세를 유지 중임

상황 평가

- 일본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준수 및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예방접종 실시를 당부함
-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최근 증가추세이며,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함

- 일본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대상 예방접종 실시를 당부함.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 참여를 강조함⁵⁾(10.3.)
- 국내 '25~'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지난 9월 22일 시작되어 어린이 및 임신부 접종이 먼저 시행됐고, 현재는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됨.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함⁶⁾
- 국내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최근 증가 중이며, 39주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9.0명으로 '25~'26절기 유행 기준(9.1명)에 근접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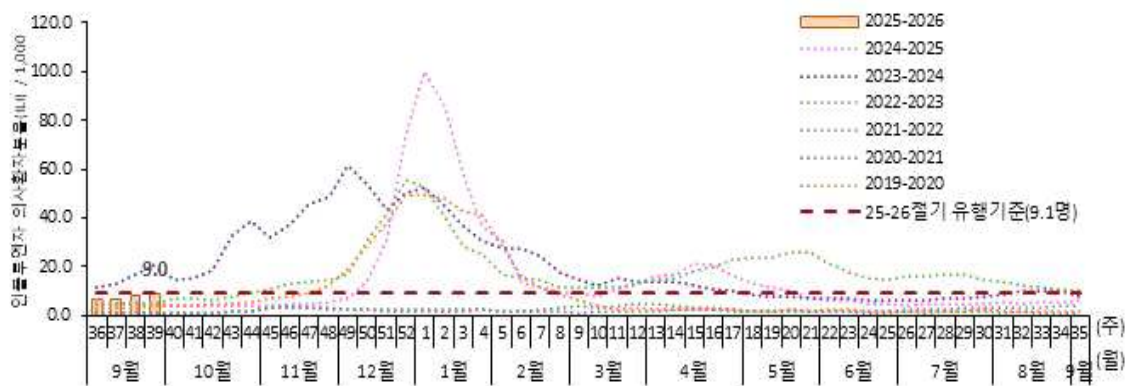


그림 1-3. '19년~'25년 국내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질병관리청, '25.10.2.)

1) 보도자료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025년 10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 '25.10.10.)
 2) 인플루엔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시기관당 보고 수의 추이 (일본 후생노동성, '25.10.10.)
 3) Flu season starts early across Japan (NHK World Japan, '25.10.3.)
 4) 오키나와현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2025년 40주차 (오키나와 보건부, '25.10.8.)
 5) 보도자료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025년 10월 3일 (일본 후생노동성, '25.10.3.)
 6) 보도자료 |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 '25.10.14.)
 7) 2025년 39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K-SenS (질병관리청, '25.10.2.)

2. 인플루엔자, 태국 Influenza in Thailand

발생 상황

태국에서 9월 이후 인플루엔자가 급격한 증가세로 40주차에 가장 많은 약 55,000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전년 동기간 및 최근 5년의 중앙값보다 크게 증가함

- 태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중으로 '25년(~10.8.) 인플루엔자 환자 702,238명(사망 61명) 보고됨. 10만 명당 발생률은 1,081명이고, 연령대별 발생률은 5세~9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4세 미만, 10세~14세 등 순임.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이임¹⁾
- 태국 인플루엔자 상황보고서(40주차)에 따르면, '25년 1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고된 환자는 692,383명(10만 명당 발생률 1,066명)으로, 9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로 최근 주간(40주차) 환자 발생은 전년 대비 많은 발생 수 및 최근 5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²⁾
- 연령대별 발생률은 5세~9세(10만 명당 3,729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0세~4세, 10세~14세 등 순이며, 지역별로는 중부 지역(10만 명당 1,492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가장 높은 발생률이 보고된 주는 푸켓(10만 명당 2,588명)이며, 촌부리(10만 명당 2,099명), 드랏(10만 명당 1,975명), 방콕(10만 명당 1,970명) 등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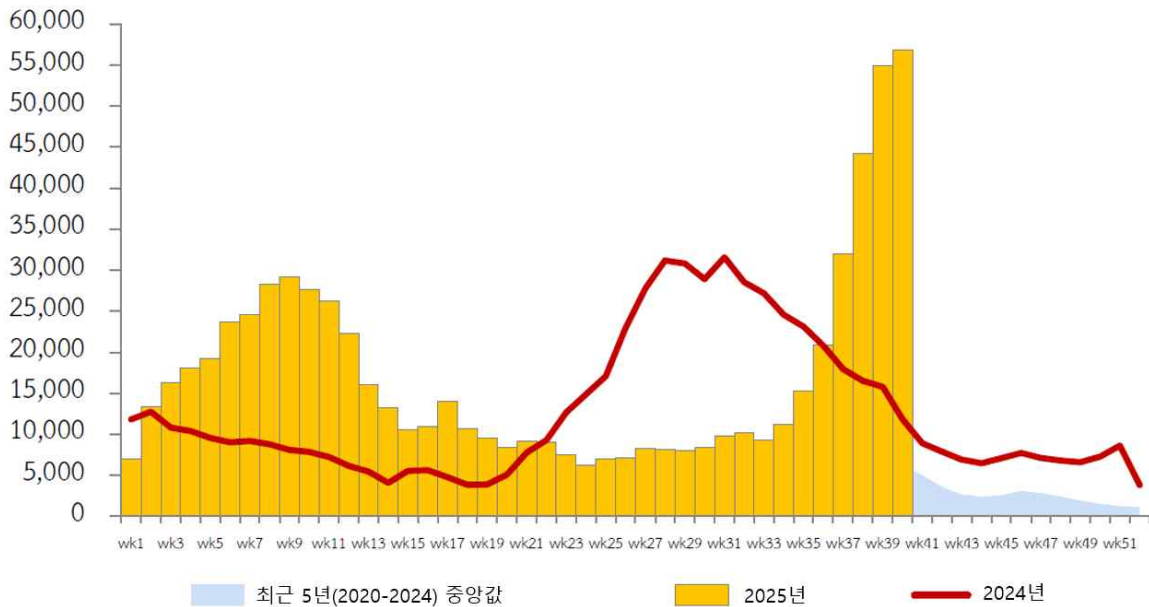


그림 2-1. '24년~'25년(~10.4.) 태국 인플루엔자 환자 주간 발생 및 최근 5년간 중앙값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 '2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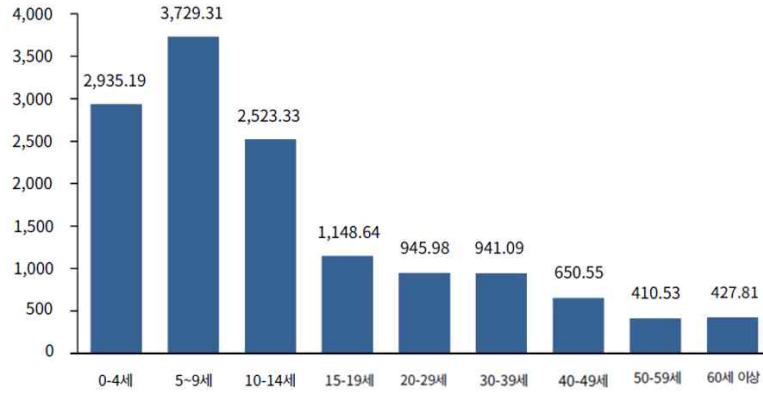


그림 2-2. '25년(~10.4.) 태국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인플루엔자 발생률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 '2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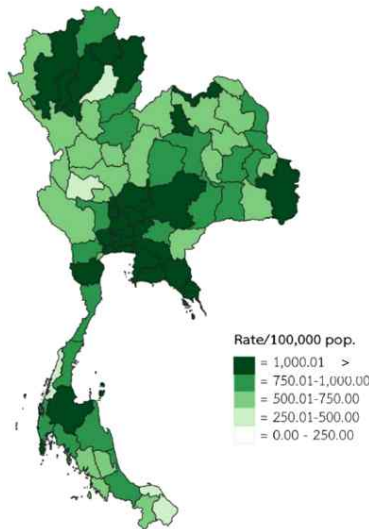


그림 2-3. '25년(~10.4.) 태국 지역별 인플루엔자 발생률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 '25.10.13.)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및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25.1.1.~10.4. 동안 수집한 검체 총 5,706건을 분석한 결과, 849건(14.88%)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으며, 849건 중 A(H3N2) 355건 (41.81%), A(H1N1) 299건(35.22%), B형 8건(22.9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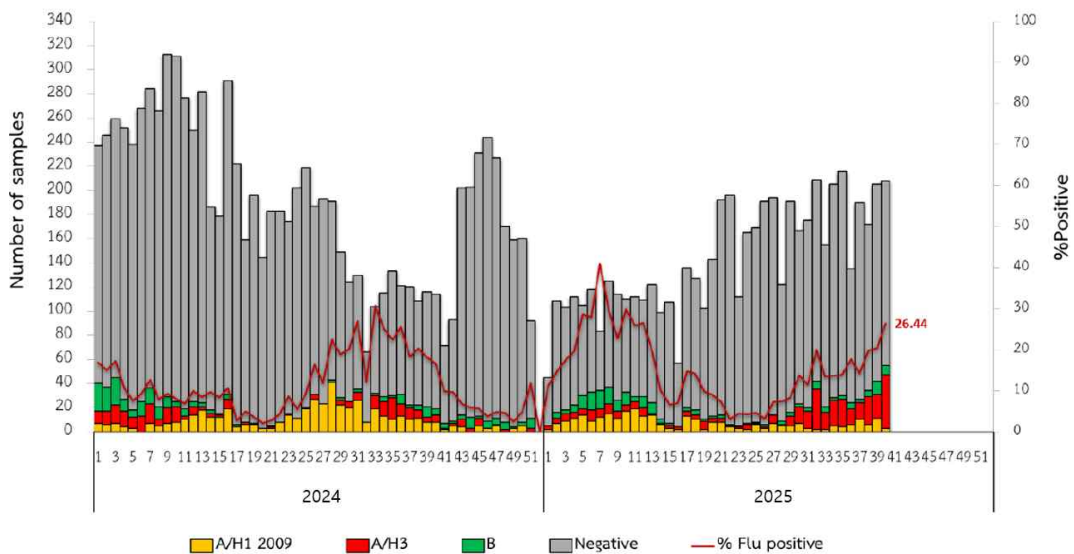


그림 2-4. '24년~'25년(~10.4.) 태국 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 '25.10.13.)

상황 평가

태국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우기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날씨 변화를 언급하였으며,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조치 및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함

- 태국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증가의 주요 요인은 우기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날씨 변화이며, 올해 특히 인플루엔자 확산 및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혼잡한 장소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기의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중증 질환 및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함

* 임신부(4개월 이상), 생후 6개월~2세 영아, 만성폐쇄성폐질환자·천식·심장병·뇌졸중·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자, 항암 화학요법 치료 중인 암 환자, 당뇨병 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

- 인플루엔자는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교도소, 군부대, 직장 등 사람이 많고 밀폐된 환경에서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계절 변화와 인력 이동에 따라 환기, 청소 및 건강 관리 조치를 개선하여 학교와 직장 내 전파 위험을 줄일 것을 당부함³⁾
- 아울러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대응 및 자원 백신 등 자원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국내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⁴⁾⁵⁾

1) Thai influenza cases surge past 700,000 with 61 deaths (Bangkok Post, '25.10.9.)
 2) 태국 인플루엔자 상황 보고서, 2025년 40주차('25.9.28~10.4.)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 '25.10.13.)
 3) 태국 인플루엔자 확산, 확진자 70만명, 사망자 61명 발생 (Asia TV news, '25.10.10.)
 4) 보도자료 | 오늘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 (질병관리청, '25.9.22.)
 5) 보도자료 |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10월 15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 '25.10.14.)

3. 황열, 코스타리카 Yellow fever in Costa Rica

발생 상황

- 코스타리카에서 1956년 마지막 황열 확진 사례 보고 이후 약 70년 만인 올 10월에 황열 확진 환자가 보고됨. 환자는 황열 백신 미접종자로 페루 아마존 지역 여행력이 있음
- '25년(~39주) 미주지역에 황열 환자가 300명(사망 126명) 발생하여 '24년 총 발생(환자 61명, 사망 30명)을 이미 초과함

- '25년 10월 12일 코스타리카 보건부는 1956년 마지막 황열 확진 사례 보고 이후 약 70년 만에 황열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함. 이는 코스타리카 영양 및 건강 연구 교육 연구소(Instituto Costarricense de Investigación y Enseñanza en Nutrición y Salud: INCIENSA)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환자의 역학 정보는 다음과 같음¹⁾²⁾³⁾⁴⁾
 - 환자는 29세 미국 국적 여성으로 페루 아마존 지역 여행 후 코스타리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됨. 증상발생일은 10월 7일이며, 입국일은 10월 8일임. 환자는 황열 백신 미접종자이며, 환자와 함께 입국한 같은 국적의 동행인은 예방접종 완료자로 황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 현재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코스타리카 공공병원(CCSS)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임. 현재 추가 사례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음
- '25년(~39주) 미주지역의 황열 환자는 300명(사망 126명) 발생하여 '24년 총 발생 61명(사망 30명) 보다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사망은 약 4배 증가함. '25년 주요 발생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6개 국가임. '25년 미주지역 황열 발생은 '24년 말부터 증가하여 현재(39주) 이미 '24년 총 발생을 초과하였으나 '25년 역학 5주에서 15주 집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속 감소세임⁵⁾
 - 브라질은 '25년 125명 발생하여(사망 51명) '24년 8명(사망 4명) 발생 대비 환자 약 16배 증가, 사망 약 13배 증가함
 - 콜롬비아는 '25년 112명 발생하여(사망 46명) '24년 23명(사망 13명) 발생 대비 환자 약 4.9배 증가, 사망 약 3.5배 증가함
 - 페루는 '25년 46명 발생하여(사망 18명) '24년 19명(사망 9명) 발생 대비 환자 약 2.4배 증가, 사망 2배 증가함
 - 에콰도르는 '25년 11명 발생하였고(사망 8명), '24년엔 보고 사례 없음
 - 볼리비아는 '25년에 5명 발생하여(사망 2명) '24년 8명(사망 4명) 발생 대비 환자는 62.5% 수준 및 사망은 50%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임
 - 가이아나는 '25년 1명 발생하여(사망 1명) '24년(발생 3명, 사망 없음) 보다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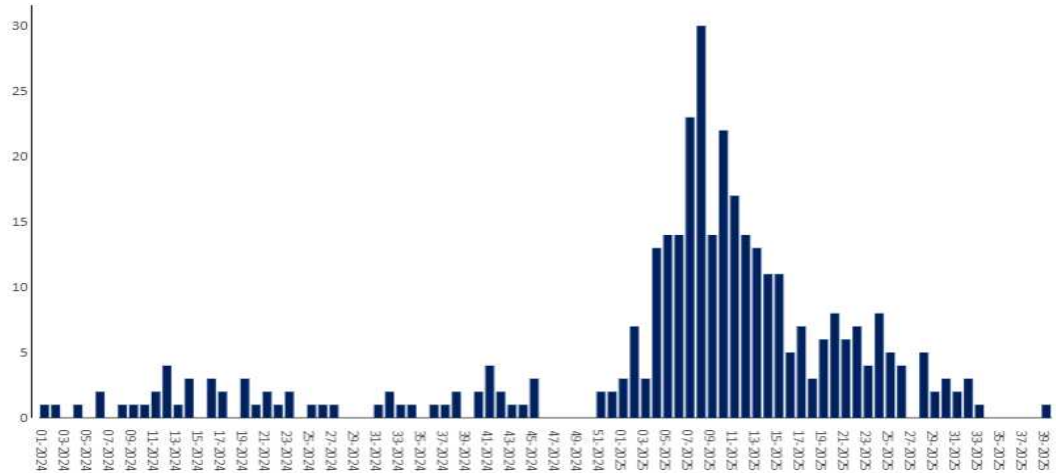


그림 3-1. '24년~'25년 미주지역 주간 황열 발생 현황 (PAHO, '25.10.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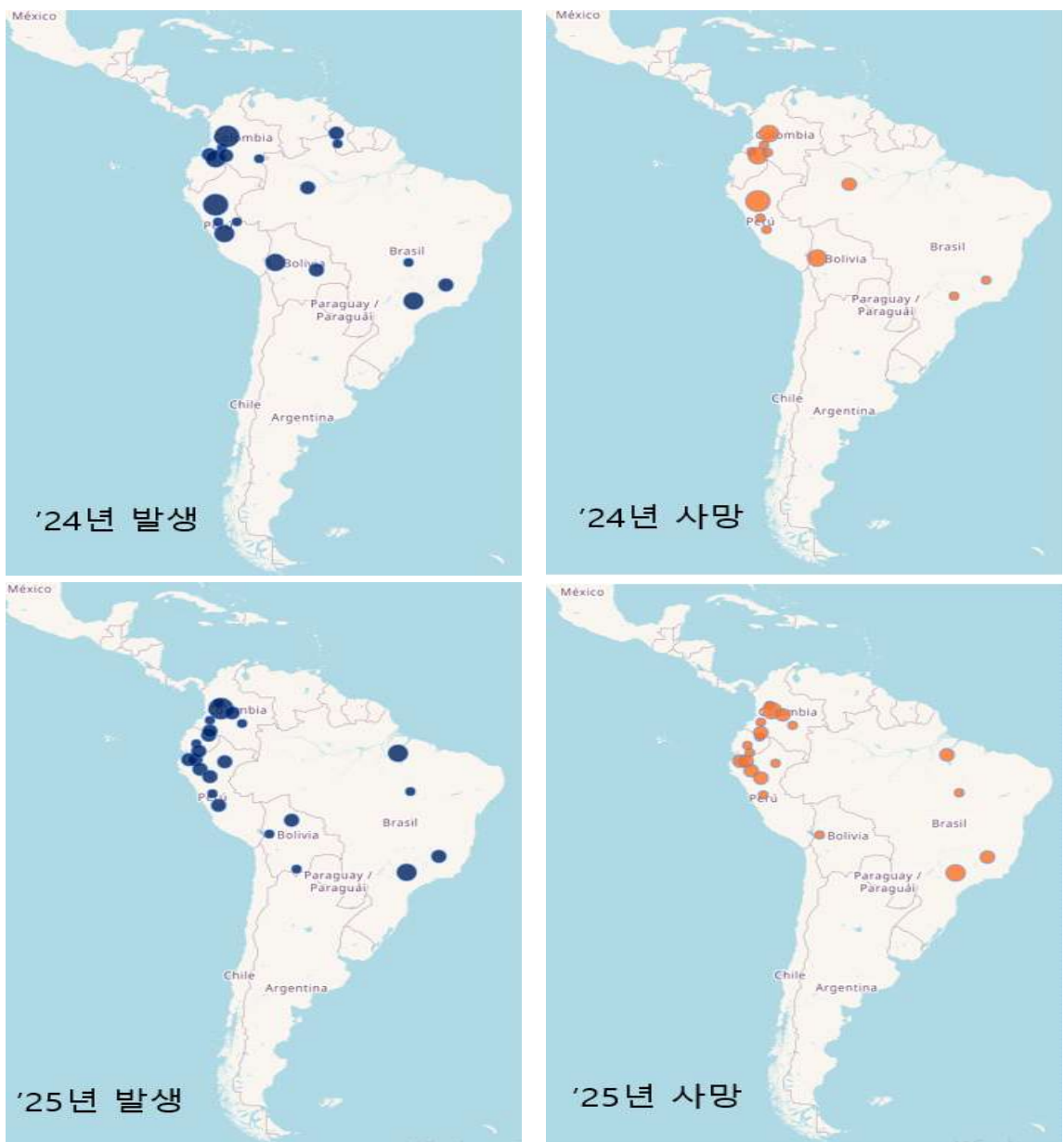


그림 3-2. '24년~'25년 미주지역 황열 발생 및 사망 지역 분포 현황 (PAHO, '25.10.9. 기준)

상황 평가

- 코스타리카는 환자 발생지역의 황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모기 물림 예방수칙 안내 및 황열 감염 우려지역 여행객 대상 백신접종을 권고함
 - 현재까지 국내 황열 감염은 보고된 적 없음. 황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황열 예방접종을 권고함
- 코스타리카 보건당국은 환자가 머물렀던 라 포르투나 데 산 카를로스 지역의 황열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추가 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임. 또한 모기 물림 방지를 위한 기피제 사용, 긴팔 옷, 모기장 사용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¹⁾²⁾³⁾⁴⁾
 - 아울러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수리남 및 열대 아프리카 국가 등을 방문할 여행객은 여행 최소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 국내 황열 사례는 보고된 적 없으나, 황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①모기 기피제 사용, ②긴팔 셔츠나 바지를 착용, ③모기장 사용 등의 예방 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을 권고함⁶⁾

1) Ministerio de Salud confirma caso positivo de fiebre amarilla en Costa Rica (코르타리카 보건부, '25.10.12.)

2) Costa Rica reports first yellow fever cases since 1956 in a traveler returning from the Amazon region (BEACONBIO, '25.10.13.)

3) 언론보도 | Casi 70 años libres de fiebre amarilla: Congifirman caso positivo en Costa Rica (CR HOY, '25.10.12.)

4) 언론보도 | CCSS refuerza vigilancia en La Fortuna tras caso importado defiebre amarilla (SanCalos, '25.10.12.)

5) Yellow fever (PAHO dashboard, '25.10.9. 기준)

6) Preventing yellow fever, Yellow fever virus (美CDC, '25.5.14.)

4. 공수병, 프랑스 Rabies in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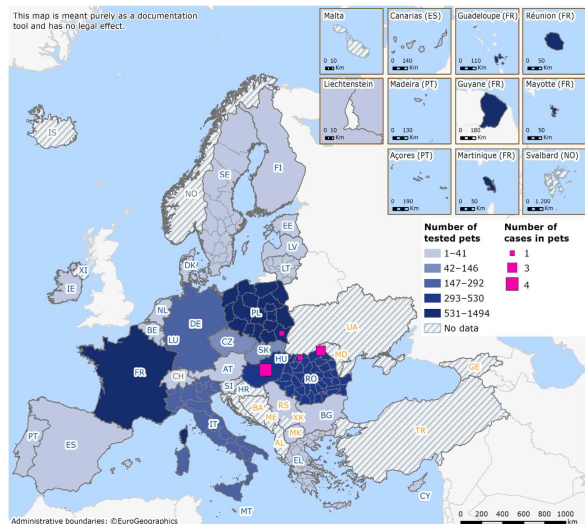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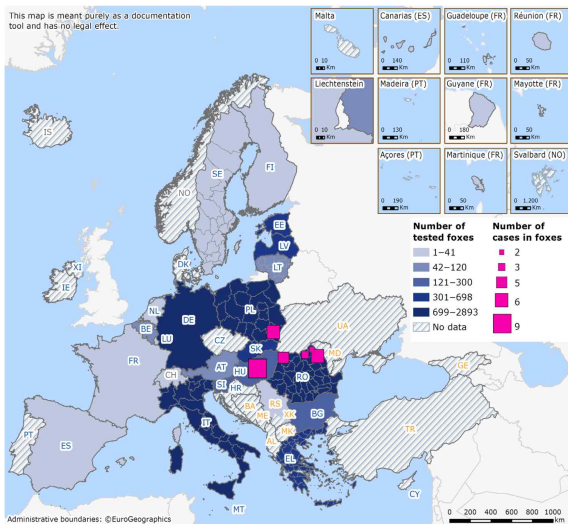
발생 상황

'25년 프랑스 남부 페르피냥 지역에서 물 공포증, 경련을 보이며 입원(9.18.)한 환자가 공수병 확진 확인 후 사망(9.25.)함. 보건당국은 예방조치 시행 및 감염 경로 조사 중임

-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주 페르피냥(Perpignan)에서 물 공포증, 경련 증상을 보인 성인 환자(남성)가 해당 지역의 병원에 입원(9.18.)하였고, 국립 공수병 센터에서 공수병 확진을 받은 다음 날 사망(9.25.)한 것으로 보고됨(10.1.)¹⁾²⁾. 역학조사 결과, '24년 2월에 광견병 유행 국가를 방문하여 고양이 접촉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물 접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³⁾
- 국립 공수병 센터와 옥시타니 지역 보건청은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과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¹⁾. 또한 예방조치로서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공수병 백신을 접종받음³⁾
- 유럽에서 공수병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음. 올해는 루마니아에서 공수병 지역감염 사례*가 보고되어 지난 2012년 마지막 유럽 내 공수병 지역감염 발생(루마니아) 이후 처음으로 보고된 유럽의 지역감염 사례임⁴⁾.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올 6월에 해외유입 공수병 사례가 보고되어 각각 모로코 및 에티오피아 방문 시 개 접촉력이 확인됨⁵⁾. 유럽 동물 광견병은 일부 지역의 야생동물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루마니아(소 28건, 여우 16건, 개 4건, 오소리 1건), 헝가리(여우 9건, 개 3건, 소 1건, 고양이 1건), 폴란드(여우 6건, 개 1건)에서 지역감염 광견병 발생 71건**이 보고됨(박쥐 제외)⁶⁾

* '25년 2월경 유기견에 물린 44세 남성이 6월에 발병하여 7월 중순 공수병으로 사망함

** ('19년) 5건 → ('20년) 12건 → ('21년) 118건 → ('22년) 7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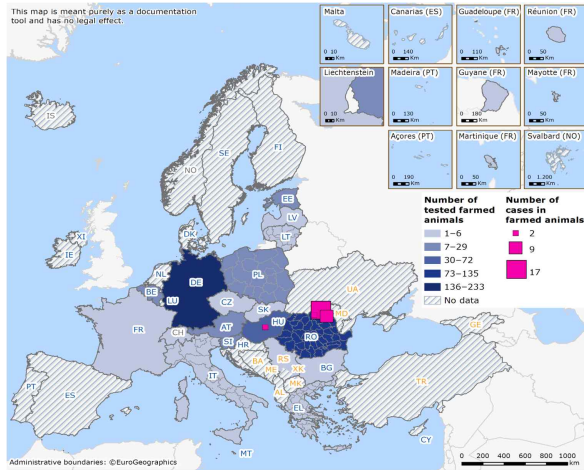


그림 4-1. '23년 유럽 여우(좌상), 반려동물(우상), 가축(좌하) 광견병 발생 현황 (EFSA(유럽식품안전청)/ECDC(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 '24.12.10.)⁶⁾

- 한편, 인접국인 일본의 가장 최근 사례는 '20년에 보고된 해외유입 공수병 사망건으로 '19년 9월 필리핀에서 발목을 개에 물렸던 외국인이 '20년 2월에 입국한 후 5월경에 물 공포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6.13.)함. 해당 사례는 지난 '06년 해외유입 사망 발생 이후 약 14년 만에 일본에서 보고된 공수병 사망 사례임. 일본의 지역감염 공수병 사례는 1956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음⁷⁾⁸⁾

상황 평가

- ECDC는 현재 프랑스 본토의 주민이나 방문객이 공수병에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프랑스 보건당국은 공수병 유행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함
- 국내 공수병은 '04년에 마지막 발생 보고됨. 공수병 유행지역 여행 시 동물 접촉을 피하고, 물림·할퀴 발생 즉시 상처 세척 및 의료기관 방문할 것을 권고함

- 프랑스령 기아나에서는 공수병 환자 발생이 보고('08년, '24년)되었으나 프랑스 본토에서는 '01년 이후 공수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산발적으로 동물 광견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북아프리카의 광견병 풍토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주로 개)의 불법 반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음. ECDC는 현재 프랑스 본토의 주민이나 방문객이 공수병에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프랑스 보건당국은 공수병 유행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장함³⁾
- 국내에서는 '04년 마지막 공수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환자 보고 없음. 공수병은 대부분 광견병 감염 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할퀴 교상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함유된 타액이 침투하여 감염되므로 공수병 유행 국가 방문 시 동물 접촉을 자제하고, 물림이나 할퀴 등 노출 시 즉시 비눗물로 씻고,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세척 후 소독 등 추가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함⁹⁾

1) Un cas de rage humaine diagnostiqué à Perpignan : point de situation sur les mesures de prévention sanitaires et animales déployées (프랑스 지역 보건청/ARS, '25.10.1.)
 2) Il souffrait de convulsions et d'une peur de l'eau : un homme meurt de la rage à Perpignan (언론보도 Actu, '25.9.30.)
 3)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ECDC, '25.10.3.)
 4) Tragic human rabies case in Romania (Rabies-Bulletin-Europe, '25.7.23.)
 5) Worldwide rabies risk reminder (TravelHealthPro, '25.6.19.)
 6) The European Union One Health 2023 Zoonoses report (EFSA/ECDC, '24.12.10)
 7) IASR vol.42, Reports of rabies cases in Japan in 2020 (일본 국립보건위기관리연구소, '20.4월호)
 8) A Case of Rabies in a Person Bitten by a Dog During Stay in the Philippines (일본 후생노동성, '20.5.22.)
 9) 2025년도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5.3.24.)

참고사항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10.15.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10.9.~10.15.)	· 신규발생 없음
'25년 발생 (10.15. 기준)	· 8개국에서 30명 발생(사망 11명) - 캄보디아(16명, 사망 8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4명), 인도(2명, 사망),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멕시코(1명, 사망)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 25개국에서 992명 발생(사망 476명, CFR 48%) -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88명, 사망 51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2명, 사망 1명) 등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 WHO(9.29.)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대상

-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일정

-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 임신부** | 9. 29.(월) ~
- 65세 이상** | 75세 이상 | 10. 15.(수) ~ 70 ~ 74세 | 10. 20.(월) ~ 65 ~ 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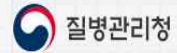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8.19.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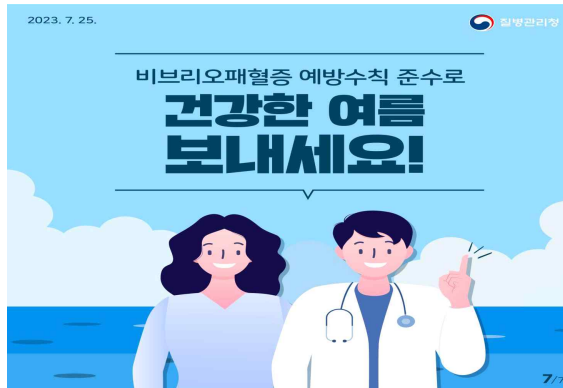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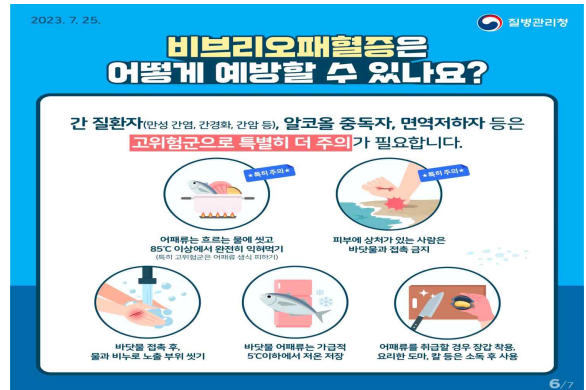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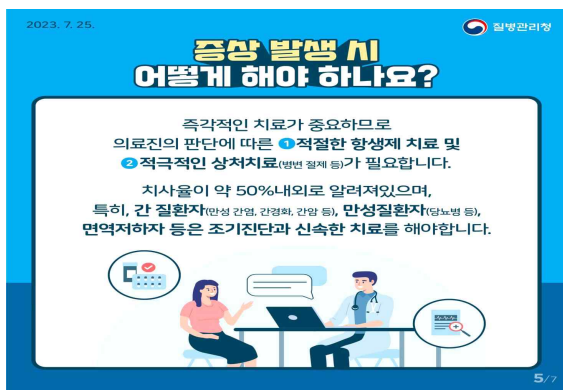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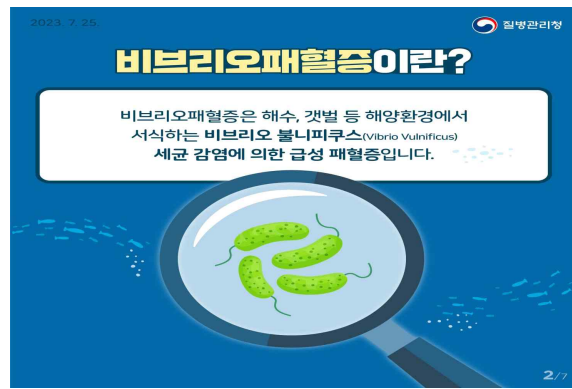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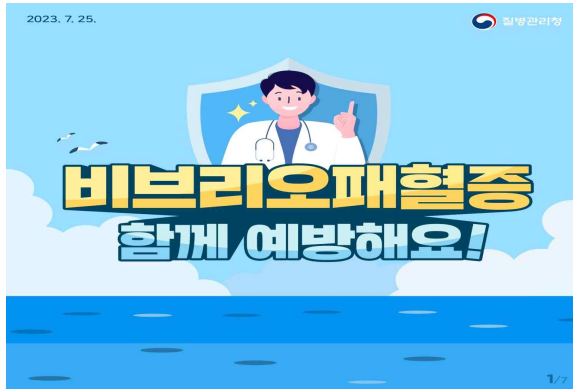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비브리오패혈증 함께 예방해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털고

에어컨으로 진드기 털기



씻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빨래하고

아외복 분리 세탁하기



3GO!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 프쯔기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
-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뭇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5명 중
1명 사망
(2013~2019년, SFTS 기준)

의심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드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소식>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